

“무주반디랜드 아쿠아존 가자” 진안 ‘딸기막걸리’ 최우수상

13·20일 생태프로그램 운영… 열대어·대형물고기·수달 등 만날 수 있어

무주반디랜드 곤충박물관 내 아쿠아존 생태프로그램이 오는 13일과 20일 각각 오전 11시 20분과 오후 3시 20분에 진행된다.

아쿠아존 생태프로그램은 반디랜드 수족관 수달과 어류 등을 활용해 생태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당일 반디랜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문 사육사로 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 서식하는 열대 어와 대형물고기의 생태 특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금강의 물고기들(금강모치, 눈볼개 등)을 직접 볼 수 있다. 아쿠아존의 마스코트 작은 발톱 수달 ‘수리’와 ‘아리’와의 만남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반디랜드 아쿠아존(1층 전시실)은 무주에 서식하는 토종생물과 전 세계 다양한 어류들이 숨 쉬고 있는 생태전시실로, 반구 터널 구조의 투명 아크릴 형태로 조성돼 있어 특히 대형 물고기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기 좋다. 이곳에는 20여 종의 금강 물고기들



무주반디랜드 곤충박물관 내 아쿠아존 생태프로그램이 오는 13일과 20일 각각 오전 11시 20분과 오후 3시 20분에 진행된다.

과 수달, 무주구천동 계곡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납생이 등 다양한 수생 생물을 전시·보호하고 있다.

한편, 무주반디랜드는 여름철 성수기(7. 21.~8. 17.)와 제29회 무주반딧불 축제 기간(9. 6.~14.) 동안 매주 월요일 정기 휴관 없이 운영된다. 단, 물놀이장과 사계절 썰매장은 월요일에 시설 내 안전 점검 등을 진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성수주조장 제품,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저도수 탁주 부문 수상

진안군 성수면 농업회사법인 (주)성수주조장의 ‘딸기막걸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저도수 탁주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술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국내 유일의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로, 올해는 전국 246개 양조장에서 총 402개 제품이 출품됐다. 그 중 ‘딸기막걸리’가 저도수 탁주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얻었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성수주조장의 ‘딸기막걸리’는 진안산 고당도 딸기가 주세배상 과실 최대 함량 수치(20%)에 근접한 19% 이상 함유된 제품이며, 20여 일간 3번 빛은 뒤 한 달간 저온 숙성을 거쳐 그 맛과 향이 깊다.

이 제품은 과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물론, 세계 3대 주류 품평회 중 하나인 ‘몽드 셀렉션’ 금상, 국제식음료평가원 은상, 홍콩 주류박람회 동상 수상 등 전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딸기막걸리’를 비롯한 수상제품은 11월 예정된 2025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관상은 물론, 세계 3대 주류 품평회 중 하나인 ‘몽드 셀렉션’ 금상, 국제식음료평가원 은상, 홍콩 주류박람회 동상 수상 등 전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여름방학 진로캠프’ 성료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은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운영한 ‘장수 꿈의학당, 장수학당 여름방학 진로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2025년 장수군 으뜸인재육성사업’에 참여하는 220여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진로에 대한 목표 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증진 및 자기 성정의 기회를 제공할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첫날인 5일에는 ‘문화가 있는 진로탐색’을 주제로 합합 코믹댄스 뮤지컬



《비스쿨》 공연을 관람했으며, 둘째 날에는 ‘제2회 청소년 정책제안대회’가 열려 청소년들의 주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 셋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1:1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컨설팅’을 통해 학생 개인의 적성과 희망 진로를 반영한 심층 상담과 구체적인 진로설계가 이뤄졌다.

무주군, ‘폐전지 수거’로 환경보호·자원 재활용 앞장

무주군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실천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11일 공무원과 지역 내 유관기관, 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폐전지 집중 수거 운동’ 펼쳐다.

이날 캠페인은 군청 본관 2층 환경과 자원순환팀에서 공무원과 각 유관기관 및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다 사용한 폐전지를 수거하고 새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주군은 폐전지 10개당 건전지(AA, AAA) 1개 또는 화장지 1개로 교환해



했으며 수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관 및 사업장은 자체 선정 후 최우수 사업장은 건전지 50세트, 우수 사업장은 30세트를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호응을 얻었다.

‘장수물 with 광장페스타(시즌1: 맥주)’ 성황리 개최

2000여명 방문… 총 6500만원 매출 기록

장수군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계남면 장수IC 입구 ‘장수 만남의광장’ 일원에서 열린 ‘장수물 with 광장페스타(시즌1: 맥주)’가 약 2천여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막을 올린 축제는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비롯해 신선한 농·특산물 판매, 색다른 먹거리, 다양한 만들기 체험, 이벤트, 게임,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장수군 농특산물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장수물’에서 농·특산물, 먹거리, 체험 등 행



에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하반기에도 시즌제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해 ‘광장페스타’를 군을 대표하는 소규모 지역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내실 있는 문화행사를 지속 개최해 장수를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 내 즐길거리 이용 시 40%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구매권 판매 이벤트도 진행해 더욱 특별했다.

이를 통해 장수물은 1,000여명의 신규 회원을 확보했고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 장수 만남의광장 ‘더데드하우스’의 1천5백만 원과 함께 총 6천5백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장수군은 이번 ‘시즌1: 맥주’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장류·막걸리·김장·발효 등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을 결합한 테마로 소규모 릴레이 페스타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광장페스타’

진안군, 수해복구 단체·유공자에 감사패 수여

진안군은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달려와 헌신적으로 봉사해준 단체 및 개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수여 대상은 새마을운동 진안군지회,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진안군협의회, 백운농협 봉사단, 국제레

아온스협회 전주지역 연합회 등 11개 단체와 좌포교회 강서구 목사 등이다.

진안군은 지난 7월 19일 내린 집중호우로 성수면 가수마을 8가구가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로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힘만으로는 수해 복구가 되지 않아 망연자실해 있을 때 자원봉사



자들의 도움과 위문품 지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재민 수용과 수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힘이 되어 줬다.

지역 소식통

무주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안전 점검

무주군이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지난 11일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3곳에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무주를 후도, 지전, 하곡암 지역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내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과 구명환,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또한, 물놀이 지역 주변의 위험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7월 5일부터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3곳에 안전관리 요원 8명과 위험구역 등 입수금지를 위한 순찰계도 요원 13명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월 14일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 근무반을 기반으로 공휴일을 포함한 매일 상황 근무를 실시하고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안전사고 없는 여름나기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주민세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이번 주민세 부과액은 개인분 1억3,600만원, 사업소분 1억4,100만원으로 나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진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관내 거주 외국인에게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같은 기준일 현재 진안군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입출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부과·발송했으며, 이 납부서를 통해 납부 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고지된 납부서상의 과세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